"선산용 임야 딸 명의 매입 투기 의혹"

최중경 지경부장관 내정자 청문회

"대전 농지 구입 탈법 아니냐" 추궁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를 대상으로 18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내정자의 부인 및 장인 등이 매입한 대전 유성과 충북 청원 등지의 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집중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는 최 내정자를 두둔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마저 최 내정자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최 내정자를 궁지로 몰아넣어 주목을 끌었다.

이날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대전 복용동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농지 소유를 위해서는 농지매매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농경을 주업으로 해서 독립생계를 영유해야 한다"며 자경 규정 위반을 지적한 뒤 "소유는 장인과 부인으로 돼 있는데 실제 영농보상을 받은 것은 제3자"라며 "자경 목적으로 구입한 게 맞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충북 청원군의 임야 투기 의혹과 관련, 최 내정자 부인이 취득한 땅과 인근의 땅값 변동을 비교하면서 "배우자가 취득한 땅만 많이 오른다. 어떻게 그 땅값만 오르느냐"고 꼬집은 뒤 '선산용'으로 취득했다는 답변에 대해 "선산을 취득하면서 시집간 딸 이름으로 매입하는 집안은 본 적이 없다"며 "(이 땅의) 원주인은 3남매다. 불과 5살, 8살, 10살이었다. 졸지에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일한 유산인데 아무 영문을 모른 채 쫓겨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내정자가 대부분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자 지경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까지 나서 "32살 사무관과 28살 배우자의 교사 월급을 볼 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투자인데 배우자와 한 번도 상의를 안 하고 1년 동안 부동산을 산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대·중소기업 문제 및 전력난, 유가문제 등 주로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며 쟁점을 피해가는 한편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는 "처가 일은 후보가 모르는 사이에 처가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느냐"며 최 내정자를 엄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정태근, 이상권 의원 등은 최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대전 유성구 복룡동 밭과 충북 청원군 임야 매입에 대해 정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몰랐다고 하나) 장모가 그 돈을 가지고 투기를 통해 재산증식에 쓴 것"이라고, 이 의원도 "88년도에 후보자 월급이 40만원 미만이었을 것이고 부인의 교사월급까지 전부 모은다고 해도 당시 그 땅들을 절대 살 수 없는 땅"이라며 "여러 의원들이 '장모가 투기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도 후보자는 우물쭈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 한나라당은 "두 내정자 모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물로 공직수행에 큰 문제가 없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각종 의혹들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는 등 공직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있어 19일 예정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포폰 의혹 허위면 의원직 사퇴 하겠다"

민주 이석현 의원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아들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해 거센 비난을 받았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8일 자신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의혹이 허위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정조사를 실시해 만약 허위로 드러나면 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면서 "만약 (의혹이) 사실이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18일 오후 경남 거제도에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을 방문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밀랍인형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희호 여사,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첫 방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18일 오후 경남 거제도에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이날 거제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애광원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격려품을 전달한 이 여사는 오후 2시40분께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에 위치한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 및 생가를 찾았다.

이 여사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부인 이선자 씨와 김대중평화센터 윤철구 사무총장, 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 등 수행원들과 함께 기록전시관에 들어가 거제시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자료 등 전시품들을 관람했다.

특히 2층 전시실 입구에 1992년 대선 당시 사용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포스터를 나란히 붙여놓은 것을 보고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다.

전시관 관람을 마친 후에는 바로 옆에 있는 생가를 찾아 생가 건물과 김 전 대통령의 동상 등을 둘러보았다. 이 여사를 알아본 일반 관람객들이 몰려들자 한명 한명 악수를 하며 안부를 묻기도 했다.

최 공보실장은 "휴가차 1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경주에 머무는 도중, 이 여사가 한번 가서 둘러보겠다고 해 생가를 들르게 된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반도 평화·역동적 복지국가로"

부유세 도입·조건없는 남북대화 촉구

정동영 빛고을시민포럼 강연회서 주장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18일 "대외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시대정신이라면 대내적으로는 역동적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이라며 부유세 도입과 조건없는 남북 대화를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빛고을시민포럼(이사장 전갑길)과 광주·전남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공동대표 양형일·전갑길) 초청으로 이날 광주를 방문해 가진 강연회에서 "민주정부 10년간 보편적 복지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씨줄로는 경제 민주화, 날줄로는 보편적 복지가 교직 되면 역동적 복지국가의 전체적인 그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금을 내는 사람과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크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수조원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줬음에도 아들은 세금으로 고작 16억원을 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보편적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야 한다"고 부유세 주장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년이면 성장과 개발, 경쟁력을 강조하는 보수 한나라당 세력이 집권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입각한 민주진보정부로 정권을 교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며 "내년의 선택은 민족과 민주의 가치를 이 땅에 꽃피운 호남정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은 바빠지고 있는데 정작 한반도 문제의 주인인 남과 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남북이 우리의 운명을 주도하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전면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며 "지금은 대화할 용기가 필요하고 대화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붙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남북평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2월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초청강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광주시·전남도당

한지붕서 일한다

유동 소석빌딩 이사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한지붕에서 업무를 함께 하게 됐다.

18일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다음달 중순께 현재 서구 치평동 랜드피아 17층에서 북구 유동 소석빌딩 6층으로 당사를 옮긴다.

이에 앞서 전남도당은 지난 7일 동구 학동에서 소석빌딩 9층으로 당사를 옮겨 다음달부터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같은 건물에서 활동하게 됐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한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90년대 이후 처음이다.

한편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오래전부터 북구 중흥동의 한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한나라 과학비즈니스벨트 혼선 가중

대전 최고위원 회의 연기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 상당수가 충청권 유치 입장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주최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비즈니스벨트,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친이 성향의 정 최고위원 외에도 나경원, 서병수, 박성효 최고위원이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가 이명박 대통령과 당의 공약인 만큼 공당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충청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세종시 문제로 충청권의 반발을 샀던 상황에서 과학벨트 공약마저 지키지 않을 경우 '충청권의 야당화'를 지켜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족기능이 없는 세종시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으며, 여야는 물론 온 나라가 몸살을 앓을 것"이라며 "과학벨트가 세종시로 가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선거 논란도 없어진다"고 내다봤다.

나 최고위원은 "우리는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가져가기로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공당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구태여 공모 절차를 거친다고 해 평지풍파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정부 입장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내부 논란이 커짐에 따라 19일 대전에서 열기로 했던 최고위원회의도 연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 방청객은 "포항도 과학벨트 유치를 준비하는데, 다 정해놓은 것 아니냐"고 항의했고, 특정 정당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모씨는 토론회장 밖에서 "이미 유치지를 정해놓고 토론회를 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다 국회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장 및 교원초빙 · 사무직원 모집

구 분	세부내용	인원	비고
학교장	학교장 초빙 공모	0명	정교사 · 기간제
국어	국어. 글쓰기 등 (논술수업 가능자 우대)	0명	
영어	영어. 텝스. 토플 등 (회화수업 가능자 우대)	0명	
수학	수학(수리논술 가능자 우대)	0명	
행정	행정실 근무 (시설관리)	0명	
	기숙사 행정 책임자	0명	
시설	시설 관리원	0명	
사감	여 기숙사 사감	여0명	
	남 기숙사 사감	남0명	
조리원	시간제 조리원	0명	

■ 교원 우대조건 ① 교원 인센티브 지급
② 우수교원 해외연수 특전 부여
③ 국내외 석·박사 학위 소지자 우대
④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신 분 우대
⑤ 독신자 숙소 제공

■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① 공고기간 : 2011년 1월 10일(월) ~ 2011년 1월 19일(수)
② 접수기간 : 2011년 1월 10일(월) ~ 2011년 1월 19일(수) 16:00 까지
③ 접수장소 : 보문고 행정실(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29번길 37 (운수동 308)
④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인터넷 접수 없음

■ 문의처
학교법인 보문학숙재단(☎ 062-940-8805) 또는 보문고등학교 홈페이지 (www.bomun.hs.kr)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0일

학교법인 보문학숙 이사장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010-8494-9484

제13기 Science Communicator 기본과정
방과후학교 과학탐구 지도사 교육생 모집

모집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센터장 : 이영숙 (전남대학교 교수)

♠ Science Communicator란?
–과학현상을 쉽게 설명해주는 전문 '과학 해설사'
–과학관, 생활과학교실, 방과후 학교 등에서 실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 유도.

♠ 대상자 및 선발인원
– 이공계 전문학사이상 여성(2012년 졸업예정자 포함)
– 선발인원: 20명 내외(비이공계 20%)

♠ 특 징
– 강 사 : 전남대 과학영재교육 담당 교수진, 방과후 학교 대통령상 수상자, 현장 전문가 외
– 파트타임 방과후학교 교사, 생활과학 교실 추천 및 활용
– 미취업자는 정부부처 일자리 창출사업 우선 선발

♠ 기간 / 장소
– 기 간 : 2011년 2월 7일 ~ 18일(월, 수, 금)
2011년 2월 21일 ~ 24일(교육실습)
– 장 소 :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사범대학

♠ 신청방법 :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gjis.wist.re.kr/) 참조
– 신청기한 : 2011년 2월 1일까지(선착순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교육 내용 : 홈페이지 (http://gjis.wist.re.kr/) 참조

♠ 문 의 : 062) 602-7405 (7402~7406)

주 관 : 교육과학기술부지정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GJIS WIST Gwangju Jeonnam Institute for Supporting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NRF 한국연구재단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